

## 괴테의 자연탐구\*

강 두 식\*\*

괴테의 자연과학에 대한 논의는 독일뿐 아니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추세를 볼 때 괴테의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근대과학의 발달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 특히 자연환경의 파괴와 관련해서 괴테의 자연관 및 그의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많은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괴테의 자연연구를 녹색의 자연과학이라고 명명하지만, 이 글에서는 괴테의 자연과학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괴테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은 현대의 과학사상가나 자연과학자가 바라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제목으로는 괴테의 "자연탐구 Naturforschung"가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괴테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를 남겨 놓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의 "함부르크 판본 Hamburger Ausgabe"을 보더라도 마지막의 제 13, 14권이 자연과학에 대한 논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문학가로서는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 권 외에도 괴테의 자연탐구에 관한 기록은 그의 일기와 편지 속에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괴테가 이렇게 자연탐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관한 저술은 한 권도 남기지

---

\* 이 논문은 1993년 6월 4일 독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임.

\*\*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 초대 독일학연구소 소장, 현재 전북산업대학교 총장.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쉴러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쉴러는 역사와 철학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피테는 철학에 관련된 한편의 논문을 저술했을 뿐이다. 그는 철학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철학을 기피한 흔적도 엿보인다.

어쨌든 피테는 많은 자연탐구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식물과 동물에 관한 연구가 있고, 광물학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 밖에는 가장 부피가 큰 것으로서 색채론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위에서 말한 '자연탐구'라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테는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던 것이며, 그 연구 방법에 있어서 그가 그 당시의 다른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 중에서도 뉴턴과는 아주 상반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피테의 자연탐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연탐구에 관심을 가졌다. 자연의 관찰이라는 것이 피테에게는 아주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피테가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다양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자기가 화분에다 심어 놓은 것들에 대한 관찰과 곡식에 대한 연구 등 수많은 보기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피테의 자연탐구가 '보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Einschauen'하는 것이 피테의 과학의 출발점이다. 물론 다른 과학자들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피테의 경우에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는 것으로 끝났다. 그 이상 더 자연을 파고들면 안된다는 철칙을 피테는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이 파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테의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경험론이다. 경험론에서 시작해서, 직관을 통해서 보다 심도있게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연관성을 피테는 굉장히 중요시했다. 전체에 대한 연관성이라는 틀 속에서 언제나 개개의 사물들을 관찰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직관을 통해서 개개 사물을 그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자기감성을 통

해서 어떤 표상적인 세계를 보려고 했다는 것이 괴테의 자연탐구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시적인 눈으로 사물을 관찰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단순히 개개의 자연대상물을 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과 자주 비교함으로써, 어떤 전체의 연관성 속에서 그것이 이념화된다는 것이다. 이념적인 것이란 결국은 자기 머리 속에서 하나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자연탐구의 기본적인 태도였다.

괴테의 자연탐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대상의 발생학적인 면에 많은 힘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소위 '식물의 변이 *Metamorphose der Pflanze*'라는 시각에서 하나의 식물을 관찰할 때, 그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식물들을 종류별로 수집하고, 또 어디에 특수한 것이 있다면 쫓아가서 직접 보기도 했다. 이태리 여행은 괴테의 식물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태리 여행을 통해 북독일과는 전혀 다른 식물들을 관찰하고, 또 박물관을 다니면서 그곳에 수집되어 있는 식물들을 보면서 그는 식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그것이 소위 "원식물 *Urpflanze*"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괴테는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잎이 식물의 기본 유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의 과학적 타당성은 제쳐 놓더라도,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괴테의 생각으로는 원식물이 식물의 원형 또는 근본현상이었던 것이다. 괴테는 한때 "근본현상 *Grundphänomen*"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나중에 가서는 때로 "근원현상 *Urphänomen*"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러한 명칭은 식물의 잎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방법의 자연관찰이 괴테의 자연탐구의 기본인데, 그는 동물도 이러한 태도로 관찰했다. 괴테가 '악간꿀'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도 학명이 그대로 괴테의 이름으로 붙여져, "*Satura ensi siva Goethei*"라고 되어 있는데 'Satura'는 이음새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nsi siva'는 "Schneidezahn", 즉 절치 혹은 앞니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 자연과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괴테는 나름대로 모든 동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즉 들여다보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인간에게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 역시 괴테가 유전학 및 발생학적인 면에서 동물을 관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는 괴테의 자연탐구의 기본적인 태도를 살펴 보았고,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괴테의 젊은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우리는 흔히 헤르더를 꼽는다. 헤르더는 괴테보다 겨우 다섯 살 연상이었으나,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그와 만났을 때의 헤르더는 정신적인 연령으로는 괴테보다 훨씬 더 성숙해 있었다. 아나크레온의 치졸한 범위를 벗어나서 지식욕에 사로잡힌 괴테에게 헤르더가 맨처음 가르쳐 주려고 하였던 것은 언어의 기원, 시, 특히 민요, 바로 예술일반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다.

헤르더의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자연, 우리는 그것으로 에워싸이고 얽매어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속으로 감히 들어갈 수도 없다. 청하지도 않고 경고도 없이 자연은 그 춤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지치고 그 품 속에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물고 간다. 자연은 영원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내고 현존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도 없었던 것이며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옛것이다. 자연은 영원히 변화하고 그 속에는 한 순간도 정지란 없다. 그 발걸음은 일정하고 예외는 거의 없으며, 그 법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러한 헤르더의 자연관은 괴테의 전체 자연탐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리하여 그의 자연탐구는 하나의 목표, 즉 자연의 어마어마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

1) Johann Gottfried Herder: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Bd.4, 1784-91. Berlin u. Weimar: Aufbau 1969, S. 118.

면 변화무쌍한 자연의 발전 속에서 단순한 법칙(통일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학생시절부터 흥미를 느꼈던 자연탐구에 대한 추론은 처음에는 단순히 기존의 업적을 살피기 위하여 자연과학부를 찾는 정도였으나 그것이 점점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바이마르 이주 이후 그러한 자연탐구는 때로는 이론적인, 때로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즉, 산림정책상 식물학에 손을 대게 되었고 예나 대학의 수집품을 위해서 지질학을, 그리고 예술론을 위해서 물리학에 손을 대었던 것이다.

처음에 괴테는 다만 과거의 업적을 섭렵하려고 하였지만 점점 더 열성적으로 독립적인 실험을 하게 되었고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성과의 의의는 그의 사후에 유고가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괴테는 라바터 J. K. Lavater(1741-1801)의 『인간이해와 인간애를 촉진하기 위한 인상학적 단편 Physiognomische Fragmente zur Beförderung der Menschenkenntnis und Menschenliebe』(4 Bde., 1775-78)에 자극을 받아서 예나의 해부학자인 로더 Loder의 指導아래 골상학 Osteologie을 연구했다. 그 결과 골상학은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그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두개골을 연령별로 비교 관찰함으로써 그때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상악골 속에 있는 작은 뼈들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1784).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것은 상부의 切齒 Schneidezähne를 유지하고 있는 좌우의 쌍으로 된 뼈를 말하는데, 괴테 이전에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괴테는 한 종 Gattung에 속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각각 상이한 모든 개체를 대표하는 유형 Typus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식물학의 실험에서도 시도되었다. 식물학자 린네의 재치 있는 식물분류는 괴테로 하여금 오히려 식물학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식물의 변이를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 Versuch, die Metamorphose der Pflanzen zu erklären」(1790)라는 소책자에서 그는 다양한 식물세계를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즉 하나의 유형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였는데, 이 유형을 그는 원식물 Urpflanzen

이라고 불렀다.

피테는 실로 觀照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분석적인 태도보다는 이러한 관조적인 태도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식물에 대한 무수한 관찰을 통해 다양한 형상들 역시 하나의 유형으로부터 계속 만들어졌다는 원칙을 정립하였고, 이 원칙을 모든 식물학에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형태학에 관하여 Zur Morphologie』(1820)라는 논문집이었다. 바로 이 논문집 속에 피테의 완전한 교훈시 Lehrgedicht인 『동물의 변이 Metamorphose der Tiere』가 들어 있다.

피테는 이러한 형성과 변성의 법칙이 또한 무기적인 자연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각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암석의 발생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는 그가 임종 때까지 수집하였던 많은 광물표본에서 알 수가 있다. 피테의 광물학은 다만 지리학에 대한 보조학문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리학을 지구의 골상구조에 대한 학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1784년에 그는 지극히 시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강암에 관하여 Über den Granit』를 썼는데, 그는 이 글속에서 원석 Urstein이라는 암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 원석 위에 전체지구 Erdkörper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는 이 원석을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념비라고 찬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테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색채현상까지도 가장 단순한 원리로 환원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피테가 1792년에 바이마르대공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뉴턴의 학설을 잘못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뉴턴의 학설 대신 빛과 그림자와 색채에 관한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해와 다음 해에 걸쳐서 자신의 『광학에 대한 기고 Beiträge zur Optik』를 집필하느라 씨름했으며 포르스터

---

2) Herbert Anton: Über irdische Geschichte und Archäologie im Wilhelm Meisters Lehr- und Wanderjahre. In: H. Reinitzer(Hg.): Textkritik und Interpretationen. Bern(u.a.): Peter Lang 1982, S. 195: “[...] im Anschauen sind ihm tausend Lichter aufgegangen”.

Forster, 뎀머링 Sömmering, 리히텐베르크 Lichtenberg 등의 학자들과 많은 토의를 했었다. 그는 이 연구에 열성을 보인 나머지 다른 모든 작품활동은 잊을 정도였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색채론 Zur Farbenlehre』(1810)이다. 이것은 괴테의 생애의 위대한 업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색채론의 기초적 사상을 담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분석할 수 없고 균질적인 *homogene* 것이다. 이와는 달리 뉴턴에 의하면 빛은 3색 혹은 7색이 조합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색채에 대한 괴테의 연구가 자연연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술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뉴턴의 이론과는 상반되게 색채의 예술적인 조화 *Kunstharmoneie*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허사로 끝나고, 이탈리아에서의 색채의 본질에 대한 연구도 뉴턴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근대 과학은 괴테의 이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헬름홀츠 H. L. F. von Helmholtz(1821-1894)가 말하고 있듯이,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비교적 불완전한 기기를 가지고는 결정적인 사실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의 연구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빛의 심리적인 작용을 인식하는 데에 공헌했으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색채론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과도 인정했던 『색채론의 역사에 관한 자료 *Materialien zur Geschichte der Farbenlehre*』로써 제 1급의 과학적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또한 그는 생애의 마지막에 가서는 기상학에 관한 연구도 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괴테의 자연탐구 태도는 오늘날에 와서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는 것으로 評價되기에 이른다. 즉, 오늘날에는 뉴턴 이후 서구의 과학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르네상스 이후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즉 계몽주의적인 이성만능의 사고방식은 근대서구의 과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것은 극도로 발전하여 자연을 정복하였으며, 인간을 자

연의 지배자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았다. 그 결과 과학은 최선의 핵무기와 항공기를 비롯하여 산업시대에 필요한 관리수단을 인간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구들을 재빨리 입수한 서구인들은 자연과 더 나아가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가 있었다. 진리탐구와 인간생활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믿었던 과학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하기도 했다. 과학은 출발점에서 보여준 구상과는 달리, 오직 자연의 황폐화와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를 가져왔을 뿐이다. 바로 이점이 유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많은 철학자들 - 후설, 오르테가, 발레리 - 의 견해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상황은 갈릴레이나 뉴턴 이후의 근대과학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근대과학의 기술적인 성과를 향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세계상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세계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피테의 자연과학과 그 방법이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의 자연탐구가 물리학적, 추상적인 자연과학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테는 사실 인간정신과 자연의 파괴자인 근대 과학에 대해 최초로 반기를 든 인문주의자였다.

피테는 거의 20년의 세월에 걸쳐서 색채론을 완성했는데, 그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 이 저작을 파우스트와 같은 작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의 색채론은 1세기 이상 무시되었다. 그의 문학연구자들도 문학적인 작품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그의 자연연구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작품에 나타나 있는 자연관이나 날카로운 시대비평에 대해서도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러한 피테의 자연탐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피테가 공격한 물리학자들이 피테의 자연과학연구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내놓음으로써 이런 새로운 인식이 싹텄다는 점이다. 하이젠베르크 W. K. Heisenberg(1901-1976)의 『피테의 자연관과 기술 - 자연과학적 세계관 Goethes Naturanschauung und Technik; Die natur-



wissenschaftliche Weltanschauung』(1967)이나 바이체커 C. F. Weizsecker의 『자연과학논총』 등이 괴테의 자연과학의 방법을 재검토할 것을 역설하면서 근대과학의 존재방식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근대적인 물리학적 자연상이 본연의 자연에서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견해를 진지하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과학은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들었고 그 올바른 길은 바로 괴테가 뉴턴에게 도전했던 일견 돈키호테적인 논쟁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괴테의 자연과학을 근대의 자연과학과 구분할 수 있는 징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근대의 역학적인 자연관은 자연을 무기적인 기계로 보고 자연으로부터 그 생명을 빼앗아버렸다. 즉, 자연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감을 갖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 괴테가 말하는 자연은 풍성한 생명을 간직한 초록의 자연으로서 자연의 생생한 '모습 Bild'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그의 자연연구의 주안점이었다. 즉 근대의 역학적 자연과학이 무기적인 자연의 인식만을 추구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괴테의 자연과학은 유기적인 자연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괴테 이전에도 이러한 유기적인 자연의 세계에 대한 관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관찰의 근본원리로서 간주한 사람은 괴테가 처음이었다.

둘째, 괴테는 근대의 많은 자연과학자들처럼 자연을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자기를 동일화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현대 과학자의 눈에는 이러한 괴테의 방법은 지나치게 문학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 그의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특징이 있다.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근대의 자연과학은 논리상 자연과 인간이라는 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괴테는 인간도 역시 자연이며 소우주인 인간은 대우주인 자연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일원적 사상의 연원은 이미 희랍 사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근대유럽에서 괴테의 자연과학 사상이 이단시되었지만, 본래 그러한 사고방식은 고대유럽부터 있었던

것이다. 신이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사상은 기독교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된 후에도 민중들 사이에는 신의 자연 내재설이 잔존했고 자연과 인간이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중세의 민간신앙을 이해하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갈릴레이와 데카르트 이후로 자연은 물질 내지는 기계로 변질되었다. 인식에서는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서 주관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수학적인 방법이 자연과학의 세계를 휩쓸게 되었다. 피테가 과학사상의 이러한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 이후에 연연히 이어진 전통에 충실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시와 진실』에서 보이듯이 그는 신플라톤주의와 카바라 사상이나 혹은 파라셀루스 Paracelsus를 비롯한 헤르메티시즘, 혹은 스피노자 등 이단적인 사상에 친근감을 느꼈던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피테의 출발점은 데카르트나 뉴턴에 의해서 구축된 근대과학의 그것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우리는 독일문학사에서의 이런 사상적인 계보를 비합리주의적인 조류로서 파악하고 있다. 즉 피테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무기론적인 방법과는 반대되는 사상적인 계보가 엄연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게오르크 하만, 리히텐베르그, 헤르더 등은 이러한 유기론적 비합리적인 세계관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과학과 문학의 친근관계를 믿고 있었다는 점이었다.<sup>3)</sup>

피테가 헤르더나 하만을 사숙하고 그들의 문학이론을 계승하면서 끝내는 그러한 일군의 사상적인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피테의 자연과학이 광범위하게 재평가를 받게 된 점은 유럽의 지식인이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적 방법에 기초한 자연과학의 위기를 실감하고서 다시 피테를 길잡이로 삼아 과거 유럽의 또 하나의 전통적인 사상 세계를 탐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Vgl. Karl Richter: Literatur und Naturwissenschaft, München 1972, S. 11-18 und A. Huxly: Literatur u. Wissenschaft, München 1963, S. 66 f.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은 괴테와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관념론이라고 하겠다. 괴테는 물리학적, 수학적인 객관주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근대철학의 관념론적 주관주의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철학, 특히 최근의 철학은 정말로 기묘한 물건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틀어박혀서 자기의 정신이 마침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사로잡는 식으로 자기를 자기자신 속에 완전히 가둬두기만 하면 대상을 한층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sup>4)</sup> 유럽인들은 옛날부터 자연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자연의 본질을 규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물리학적 객관주의와 관념적인 주관주의라는 두 가지 방향의 편협한 사고방식이었다. 괴테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긋고 있는 그 출발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여 물리학적 객관주의도, 관념적인 주관주의도 아닌 제 3의 길 또는 그것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을 융화하는 길을 가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는 대상적 사유 *das gegenständliche Denken*라고 불렀던 것이다. “관념론자가 물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자기 밖에 있는 물자체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즉, 두 파가 있어서 한 파가 외부에서부터 정신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다른 한 파가 내부에서부터 물질에 도달하려 해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 자연상태에 머물러서 ‘주객’이 분화되지 않은 자기의 존재방식을 가능한 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양 파의 철학자들은 언젠가는 화합을 하게 되고 그들이 분리시켰던 것은 다시 통합될 것임에 틀림없다.”<sup>5)</sup>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자연상태라는 것은 원래 셸링의 『자연철학의 이념』에서 나온 말이다. 고대 회랍에서 철학이 시작되기 이전 사람들은 아직도 철학적인 자연상태에 있었으며 자기자신이나 자

4) Goethe: Sämtliche Werke, H. A., Bd. VII S. 293.

5) Goethe: Brief an Schiller vom 6. Juni 1798.

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셸링에 의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의계에 대립시킴으로써 시작 되었다. 따라서 철학적 자연상태라는 것은 철학 이전의 상태라는 의미가 된다. 괴테는 이러한 상태로 감히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상태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이 상태가 바로 괴테의 문학의 본질을 나타내는 세계인 동시에 그의 자연탐구의 방법을 밝히는 관건인지도 모르겠다. 사실 괴테가 철학에 관심을 갖기 이전의 작품, 즉 슈투름 운트 드랑 시대의 문학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관이야말로 그의 만년의 자연탐구 방법의 핵심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